



송혜숙 안나
前 서울예술대학 교수

| 어머니이신 하느님

얼마 전, 제게 세례를 주셨던 신부님께서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하고 계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르쳤던 예술대학에서 사제 간으로 만났고, 사제서품 받으시던 해에 첫 영세자가 되고 싶다면 제게 세례를 주신 신부님입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을 들은 저는 걱정하며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신부님은 발에만 붕대를 감고 계셔서 안도했습니다. 신부님의 성품상 부모님께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을 듯해서 여쭙보니 어머님에게는 사촌 형님이 알려주셔서 다녀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셨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머님은 “다른 신자 형제 분이 다치지 않고 신부님이 다쳐서 다행입니다”라며 그분께 위로를 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밖에서 상처받는 일을 겪으면 늘 내 자식의 안위를 확인하고는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의 안위도 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면서, 자식에겐 응급조치만 취하고 견뎌내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때 어머니의 그런 무심했던 것 같은 외면과는 달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무심한 듯 살피셨을 그 마음을 참고 기다리

고 견뎌내도록 옆에서 늘 소리 없이 기도하셨을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정수를 나는 성모님에게서 배웁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술한 매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묵묵히 걸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시고 견디셨던 그 큰 인내와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내 아들이 다쳐서 슬프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연하게 아드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전체를 아우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의 소식을 듣자 호들갑을 떨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이는 아픔에 대해서만 안타까웠을 뿐 그 상황 밑바탕에 숨겨진 신비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작할 수도 없는 나의 경박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감정이 들끓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시련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은총은 아닐까요?

“사랑이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4-7 참조)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역동적인 은총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TV로 미사 참례해도 되나요?

TV 미사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강론을 듣는 것까지는 무리가 없겠지만 영성체는 불가능합니다. 주일미사는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예식이라는 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미사가 지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이거나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미사에 참례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